

P-23 체외수정-배아이식술 시행후 발생된 자연유산에서 유산아의 염색체 핵형 분석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불임연구실¹, 유전학연구실²

홍수정 · 최범채 · 송지홍 · 송인옥 · 유근재 · 백은찬 · 손일표
궁미경 · 전종영 · 강인수 · 김정욱¹ · 박소연²

자연적으로 임신한 경우 약 10~15% 정도에서는 임상적으로 자연유산이 초래되며, 체외 수정시술 과정에서도 약 18~29%에서는 임상적 유산이 일어나, 그 빈도는 자연임신에서의 유산율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유산은 근본적으로 태아 자체의 결함이나 모체에서의 수용능력 부실로 귀결될 수 있으나 체외수정후 초래된 자연유산아에 대한 염색체 분석의 보고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남성 불임이나 고식적 체외수정시술로 수정에 실패하거나 수정율이 낮은 경우 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CSI)을 이용하게되는데 이 시술 자체가 이론적으로는 meiotic spindle에 손상을 주고 배아의 염색체 이상을 초래함으로써 (Macas, 1996) 자연유산을 초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저자 등은 보조 생식술 기법 적용 후 태아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자연유산의 병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연임신과 고식적 체외수정과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한 군의 유산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은 1994년 1월부터 1998년 7월까지 임신 14주 내에 계류유산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standard G-band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수태물의 염색체 검사를 시행한 83예를 분석하였다. 이 중, 33예는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한 예로서 21예는 세포내 정자주입술, 12예는 고식적 체외수정을 하였다. 대조군은 자연적으로 임신된 후 2회 이하의 자연유산을 경험한 환자 50예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식적 체외수정군과 ICSI를 시행한 군, 대조군의 평균 연령은 각각 33.1 ± 0.9 (mean \pm SD), 34.7 ± 0.8 , 31.3 ± 0.5 세로서 ICSI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 < 0.05$). 그 외 과거 평균 자연유산의 횟수나 유산 진단 당시 평균 임신 주수, 체외수정군에서의 불임 기간 및 이식된 배아의 수는 차이가 없었다. 유산아의 염색체 이상빈도는 각각 66.6% (8/12), 57.8% (12/21), 62% (31/5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 > 0.05$), 또한 염색체의 구조적 혹은 수적 이상에도 차이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을 포함한 보조 생식술 기법은 자연유산아의 염색체 이상빈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보조 생식술 후 유산 빈도의 증가는 태아 자체의 결함보다는 다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24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선근증에 의한 불임환자에서 장기간 GnRH Analogue (LTDR) 사용 후 과배란시 난소의 반응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광문 · 유근재 · 이재훈 · 김계현 · 홍수정 · 송지홍 · 송인옥
최범채 · 백은찬 · 궁미경 · 전종영 · 강인수

서 론: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선근증을 가진 불임환자의 치료에 있어서는 아직 그 방법에 상에 논란이 있다. 최근 장기간 무월경 기간을 가진 자궁이 착상에 더욱 민감하다는 가정